



스몰캡 Analyst 오현진

## 아이지넷 (462980)

### 보험에 플랫폼 사업을 입히다

#### ◎ 보험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업체

>> 동사는 보험과 기술의 합성인 인슈어테크 전문 업체이다. 주요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기반의 보험 진단 및 추천 앱 '보닥' 서비스이며, 그외에 B2B 솔루션(마이리얼플랜, 클락패스)과 자회사 '더파트너스'를 통해 GA(보험대리점) 사업도 영위 중이다. 25년 매출 기준 플랫폼 보험 수수료 비중이 97.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플랫폼 입점 수수료 1.7%, B2B 솔루션 부문이 0.6%를 차지한다.

>> 동사의 향후 성장성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핵심 솔루션인 '보닥'의 구조와 보험 산업 내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보험 시장은 상품을 만드는 '보험사'와 영업 조직인 'GA', 계약을 성사시키는 '설계사'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해당 구조에서는 설계사가 고객 발굴과 고객의 보험 진단(가입 여부 및 보장 분석), 상품 추천 등을 전적으로 담당했기에 GA로부터 받는 수수료 또한 높게 설정된다. 그러나 '보닥'과 같은 보험 진단 및 추천 플랫폼은 기존 설계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준다. 이에 GA 입장에서는 적은 수수료 배정이 가능해지며, 설계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고객 풀 접근 및 업무 효율화가 가능해 플랫폼 사용 수요가 커지는 효과가 있다.

#### ◎ '보닥'의 독보적인 입지와 경쟁력

>> 보험 산업 내 플랫폼 사업에 대한 수요가 크에도 경쟁구도는 제한적인 점이 '보닥'의 입지를 높여준다. 보험 플랫폼 사업을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기반 데이터 역량, 보험 상품 전문성 등이 필수이다. 빅테크 업체들은 보험 사업에 대한 이해가 낮으며, GA 사업자는 제도적으로 마이데이터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동사는 21년 카카오, 네이버 등과 함께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자회사를 통해 GA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국내에서 독보적인 인슈어테크 업체로 입지를 다질 수 있다. 미국의 Goosehead Insurance가 동사와 유사하게 보험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닥'의 고객 점점 경쟁력도 높아지는 추세다. 누적 다운로드가 220만을 돌파했으며, 누적 진단 수 또한 45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플랫폼 고객 증가에 따라 데이터 자산은 커져, 플랫폼 생태계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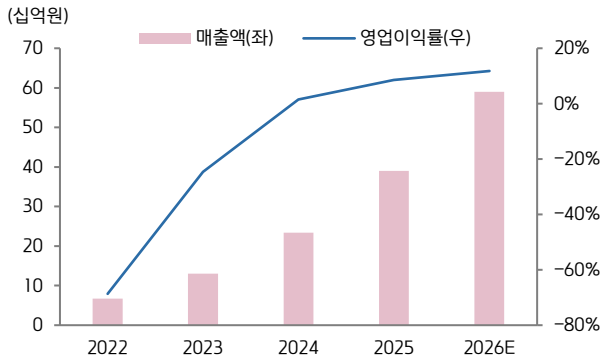
>> 실적 성장으로 성과가 진행 중이다. 동사의 25년 실적은 매출액 390억원(YoY 67%), 영업이익 33억원(YoY 845%)을 기록했다. '보닥'을 활용한 '더파트너스'의 실적 상승과 외부 파트너사의 '보닥' 입점 확대에 따른 영향이다. 26년 실적은 매출액 590억원(YoY 51%), 영업이익 70억원(YoY 109%)을 전망한다.

#### ◎ 크립토 보험 및 해외 진출을 통한 중장기 성장성도 주목

>> 플랫폼 사업을 통한 성과가 본격화됨에 따라 추가 성장을 위한 신규 사업도 준비 중이다. 동사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보험·리스크 관리 솔루션 전문 기업인 원인피니티와 MOU를 맺었다.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등을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준비금 적립 혹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양사는 국내 시장에 최적화된 가상자산 보험 및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위한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동사는 상장 이후 전방 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저하와 수급적인 문제로 주가는 하락세였다. 오버행에 대한 우려는 필요하나 동사의 산업 내 입지와 이익 체력, 향후 신규 사업을 통한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 감안할 시, 현재 주가는 현저한 저평가 국면이라는 판단이다.

아이지넷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아이지넷, 키움증권

아이지넷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자료: 아이지넷, 키움증권

‘보닥’ 프로세스



자료: 아이지넷, 키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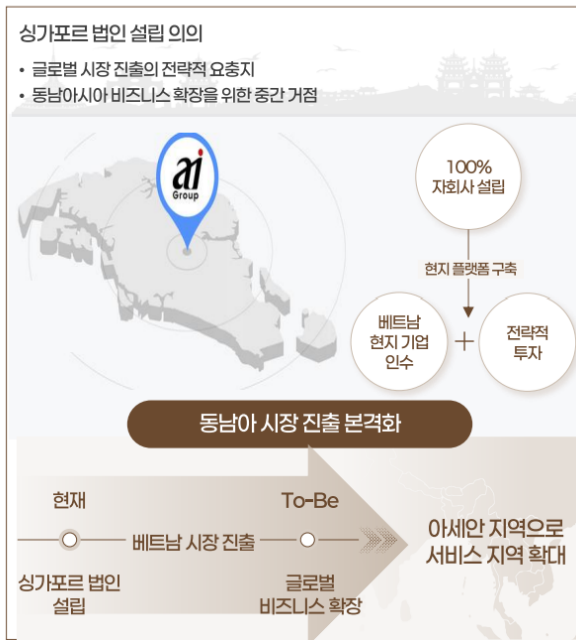
‘보닥’ 수익구조



자료: 아이지넷, 키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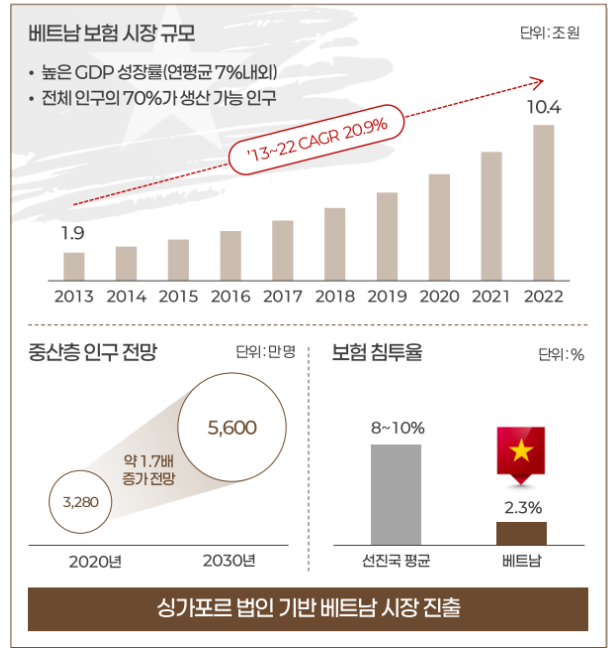
글로벌 시장 확장

싱가포르 법인 설립



자료: 아이지넷, 키움증권

베트남 보험 시장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4월 16일 현재 상기 언급된 중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